



# 환경관리인답게 일할 뿐입니다!

인천제철(주) 포항공장 환경안전팀 박주영 과장

## 해 인

살에 가을이 예쁘게 영글고 있는 10월 어느 날 대륙을 횡단해 인천제철(주) 포항공장에서 환경안전팀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박주영 과장을 만났다.

그의 환경사랑 활동이 알려져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 도지사, 대구 지방환경청장, 포항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위압적인 제철공단 사이로 솟아 있는 공장의 폼에서부터 주눅이 든 필자는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참으로 커 보인다.

어떻게 만난 그, 환경관련 일을 해오면서 많은 업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뷰를 사양하는 모습에서 드러내어 표출하기보다는 묵묵히 환경보전에만 임하겠다는 고집이 엿보이기도 한다.

“무슨 일이든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안전 기계 어떤 분야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뿐입니다.”

사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해 나열하자 박주영 과장의 대답이다.

실제 그가 90년 5월 총무부 총무과 환경담당부서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남긴 성과는 칭송을 받기도 손색이 없다.

환경담당에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흡수한 환경전실을 신설하고 이어 환경안전부로 승격,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증설 및 개선으로 환경관계

법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 직원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뿐만 아니라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참가형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환경관리·보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는 업체 환경기술 지도위원, 하천 감시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질 분석에서부터 손수 포항 형산강 자율환경감시대 팀장을 맡아 일선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사내 환경오염방제 장비인 진공 흡입차 살수차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을 인근 환경오염

사고현장에 지원함은 물론 직접 지휘감독하여 방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습득된 기술이 아까워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환경오염방제훈련을 주관해 지역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환경사랑의 노력은 포항일원 환경오염시 유용하게 활용되어 오염사고 확산방지 및 제거기술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1사 1하천운동을 실시해 공장장 이하 사내직원이 동원, 월 1회 하천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환경사랑 활동이 알려져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 도지사, 대구지방환경청장, 포항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북동부환경관리인협의회 창설 때부터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세업체 기술지원은 물론 정보제공 자연보호활동 출선수범 유도 등으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그는 환경관리인 외 다른 직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환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책임이 주어지자 ‘이 분야에

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그는 실제 늘 고민하는 자세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구하고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어떻게 하면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까’하고 세밀하게 다가가는 그의 성격이 업무향상을 꾀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같은 환경안전팀 박용현 부장은 “환경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빈틈없이 치밀하고 성실합니다.”라고 그의 업무태도를 평가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으면서도 그는 부하직원한테는 ‘잔소리 많은 상사일 뿐’이라고 말한

‘이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그는 실제 늘 고민하는 자세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구하고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어떻게 하면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까’하고 세밀하게 다가가는 그의 성격이 업무향상을 꾀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 작은 습관이 환경을 좌우하므로 상사라면 실제 환경을 위한 잔소리는 필수이다.

늘 긍정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는 그는 경쟁력 있는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한다.

먼저,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고.

둘째, 타사 환경관련 설비를 견학, 각 현장에 맞는 사항을 연구해 접목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이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며 ‘·답게 살자’의 가훈을 중요시하는 그는 늘 환경관리인답게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라는 질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풍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늘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는 요즘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 대체 에너지를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연료에 대해 연구중인 그는 “생산활동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경관리인들은 원활한 생산활동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효

과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다.

훼손된 환경이 그의 손을 통해 조금이라도 회복될 때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는 그, 사법권과 밀착되어 있는 환경관리인들인 만큼 연합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시의 건제시를 부탁하는 그는 환경을 폐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

100억원의 돈이 주워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순도 100%의 진정한 환경인이었다.

조용하고 겸손한 그를 짧게 만나고 돌아서면서 큰 제강공장의 기계소음까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한 사람의 힘이 참으로 커 보이고 감사했다. ◀

